

위클리 데모 브리프

??

?

?

공수처, 경찰  
대체 뭐함??!

준비 1호



↓ 긴급모집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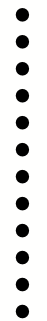
★ 프로투쟁러(지망자)들과 만나고 싶어요 ★

홈페이지

채널

X

인스타그램



# 무기력한 공수처와 내로남불 법률타령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겨우 5시간 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빈손으로 물러났습니다. 남태령에서 28시간 동안 농민과 시민들을 가로막는 차 벽을 치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농성을 13시간이나 가로막았던 것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2015년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해 사망하게 만들고, 2009년 여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그 해 1월에는 용산 철거민들을 피흘리게 만든 공권력은 왜 지금 갑자기 한없이 무력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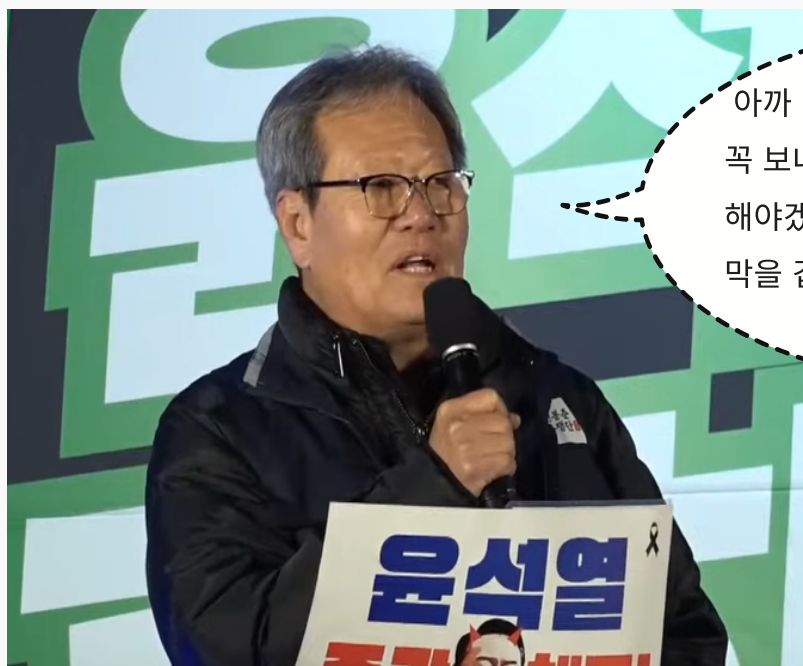
노동자 파업이 국민 경제에 해악을 끼친다고 난리를 피우던 윤석열씨는 지금 경제 같은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계엄보다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만드는 데 더 안간힘을 쓰는 국민의 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집회와 시위에 '시민 불편', '불법', '경제 위기 초래' 같은 온갖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의 진짜 속내가 계엄 실패 이후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씨, 국민의힘, 공권력 모두에게 새삼 묻습니다. 계엄은 합법입니까? 영장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당신들은 법 따위 앞장 서서 안 지키면서 왜 우리에게만 지키라고 합니까. 내로남불 법률타령, 이제 우리는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윤석열씨를 체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서서 직접 체포할 것입니다.

계엄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가 믿었던 민주주의와 상식이 얼마나 이 나라 힘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지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싸우지 않으면, 이 시스템에 채찍질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일상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더 많은 집회, 더 강력한 투쟁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국가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한남동 관저 저 높은 곳 따뜻한 방구석입니까? 아닙니다. 국가는 바로 지금 무안에서 피해자 유족 곁을 지키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국가는 또 어디에 있어야 했습니까? 국가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국가는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화물연대 노동자들, 한국오티컬 여성 해고자들 옆에서 그들 편에 서야했습니다. 국가는 성폭력과 차별에 매순간 맞부딪히는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고, 여성들을 위협하는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했습니다.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또아리 튼 저 낡고 부패한 국가를 역사의 저 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특권층 편에만 서온 구태의 실패한 독재자를 광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심판을 받는 그 날까지 우리 함께 싸웁시다. 투쟁!

## 이번주 집회 개추 발언 : 전농 회장님, 퀴어퍼레이드에 트랙터 상경 추진을 약속하다!



아까 어느 분이 퀴어 축제에 트랙터를 꼭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 그렇게 되게 해야겠지요? 아마 그러면 또 경찰은 막을 겁니다. 함께 해서 또 다시 올 수 있게 해야겠지요?

유튜브 생중계,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1부, 2:09:37초부터!  
바로 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도 개추!

## 윤석열과 국힘, 왜 저렇게 번번하지?

윤석열씨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권력은 언제나 자기 것이어야 하나봅니다. 이들은 잘못 자체를 없던 것인양 굴어서 일단 시간을 벌 생각 같습니다. 윤석열은 파면과 내란죄 유죄를 피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파면은 감수하더라도 다음 권력을 위한 지지자 결집을 위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건 기억이 약해지길 바랄 것입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면, 다른 사회 문제나 민주당의 실수가 새로 생기면, 지나간 잘못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오는 그 날을 버팀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 시위가 잦아들자 박근혜씨와 관련한 여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늘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힘이 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파면을 통해 윤석열씨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수처와 경찰, 왜 저렇게 재지?

애초에 공수처와 경찰이 정말로 윤석열을 체포하려고 했다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리력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2021년 민주노총 사무실에 쳐들어와 양경수 위원장을 잡아가려 했을 때 경찰은 2천 명을 동원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5백명이 무장하고 있을지도 모를 관저에 겨우 2백 명 가량을 데리고 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근본적으로는 빨리 대통령을 잡을 의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기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어하지만, 여전히 힘을 가진 국민의힘 주류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보다 국민의 힘을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이 불가능했던 이유로 경호처의 개인화기 소지를 들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정말로 막고 싶어했던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총부리를 붙잡고 계엄군을 저지했던 결의와 비교하면 공수처가 비웃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영장을 집행하고자 했다면 경호처에 두들겨맞더라도 진입을 시도하고 경호처의 불법성을 언론으로 생중계하며 극우와 윤석열씨의 사기를 꺾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한남동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